

##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2012년 연차총회개최지 한국 결정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연차총회가 오는 2012년 총회의 한국개최를 결정했다.

2012년 FIDIC 총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결과다.

FIDIC 연차총회는 세계 75개 회원국의 엔지니어링관련 CTO 및 관련 단체와 기술자가 참여하여 업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순수 외국인 입국자만 1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메머드급 기술관련 국제회의이다.

동 총회의 국내 개최는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엔지니어링

서비스해외시장 진출출업에 도움은 물론, 각국과의 FTA 추진에도 유리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모든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는 회의여서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없어 관광 등 관련 산업과 여행수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총회

## 이화여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문 열어

이화여대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국가핵심연구센터' (센터장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이공주 교수)가 지난 10월 18일 개소식을 가졌다.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국가핵심연구센터는 생명과학·의학 등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한 새 패러다임의 세포전달계 신약후보물질 개발과 이 분야의 대학원 모델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로 지난 6월 선정되었다.

국가연구센터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융합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식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센터 연구 분야의 관련된 학제 전공 대학원 과정의 신설 또는 기존과정의 재편과 연계된 연구센터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2006년도 제2회 신기술(NET) 예정기술 선정·발표

기업과 출연(연) 등에서 신청한 190개 기술에 대해 1차 서류 및 면접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52개(선정률 27.4%) 기술을 '2006년도 제2회 신기술(NET) 예정기술'로 선정했다고 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분야 15개, 전기·전자분야 14개, 정보·통신분야 9개, 건설·환경분야 9개, 화학·생명분야 5개 기술이고,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기술 40개, 대기업 기술 8개, 공동신청 기술 3개, 출연(연) 기술 1개다.

이번에 선정된 'LG전자(주)의 투과형 드럼을 이용한 TS(Tape Substrate) 제품의 결합 검사기술' 등 52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기간과 3차(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은 12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 국가 방사선 이용 전문 연구기관 '방사선연구원' 출범

- 2020년 연 2조원, 1만명 고용 'RFT 비전 2020' 발표 -

방사선 융합기술로 포스트-반도체 시대의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사선연구원이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산업 육성, 1만명 고용 창출 등 중장기 발전목표 'RFT 비전 2020'을 내놓으면서 5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29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 분소 형식으로 현지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방사선연구원은 방사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1년 7월 제251차 원자력위원회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가칭) 설립을 의결한 데 이어 2002년 12월 방사선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제정돼 방사선연구원 설립

## 한국우주인 1차 선발자 245명으로 압축

- 체력, 건강, 언어, 지적능력 등 두루 갖춘 인재 뽑아 -



지난 7월 14일 마감한 한국 우주인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3만6천여 명 중에서 1차 선발자로 245명(남자 211명/여자 34명)이 선정됐다.

1차 선발자 245명은 그동안 기초체력평가, 필기시험, 서류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신체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앞으로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10,21~22 양일간 2차 선발을 진행하여 언어·임무수행능력(면접 등), 심층체력 및 정신·심리검사 등을 통해 30명으로 압축하고, 향후 상황대처능력, 정밀신체검사, 사회적합성 및 우주적성검사 등 3, 4차의 과정을 통해 최종 2명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2명은 2007년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기초훈련, 우주적응 및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 등을 받은 후, 최종 1명이 2008년 4월경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하게 된다.

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전북 정읍시 신정동 일대에 방사선 연구원을 기공, 3년여 만에 개원식을 갖게 됐다.

방사선연구원은 감마선 조사시설과 전자선 가속기, 이온빔 조사 시설, 감마파이트론 등의 방사선 관련 첨단 연구시설과 농작물 육종연구를 위한 자체 시험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정 국제 RT 협력센터 유치도 확정되었고, 방사선 관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기존의 방사선 기술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BT, IT, ST, NT 등 타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방사선 융합기술(Radiation Fusion Technology; RFT)이라는 신개념의 방사선 이용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앞으로도 환경, 공업, 농업, 생물자원, 우주식품, 동위원소 이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포스트-IT, 포스트-개념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국가성장동력 기술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 '2006 대표적 우수연구성과 50선' 인증식 열려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자들이 2005년도에 산출한 연구성과사례 624건 중 50개 사례가 '2006 대표적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6일 한국과학재단 잔디광장에서 이들 성과에 대한 인증식이 열렸다.

한국과학재단은 성과인증식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우수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3개 부문(지식확장 및 학술발전, 삶의 질 향상, 산

업경쟁력 강화)의 대표적 우수연구성과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 우수연구성과는 ▲지식확장 및 학술발전 부문 21개 ▲삶의 질 향상 부문 8개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 21개 등 총 50개로서, 과학재단은 이들 성과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및 사이버전시관 개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어떤 형태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 14개 기초과학 중 정부투자 1위는 의·약학분야

14개 기초과학 분야 중 최근 5년간 정부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의·약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학은 2001년부터 5년간 과기부로부터 1천720억6천만 원을 지원받아 1위에 올랐다.

전기전자공학 분야는 782억2천700만 원으로 2위, 물리학과 기계공학도 각각 778억5천800만 원과 727억1천100만 원을 받아 각각 3위와 4위, 또 화학공학 분야는 657억900만 원, 화학분야는 506억6천600만 원, 농수산 분야는 488억4천600만 원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하위권 그룹에는 수학분야 182억7천700만 원으로 13위, 지구과학 분야 226억7천만 원 12위, 컴퓨터 분야 331억8천1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가장 투자액이 낮았던 영역은 IT(정보기술)와 BT(생명기술) 등을 통합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복합학으로 같은 기간 이 분야에는 41억4천300만 원의 투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제5회 포카전, KAIST 우승



2006년 9월 15일 스타크래프트 경기(왼쪽)와 축구대회

이공계의 영원한 맞수 포스텍(POSTECH 포항공대)과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가 지난 9.15~16 양일간 KAIST 교내에서

벌인 '제5회 포카전'은 양교의 치열한 공방 끝에 6대1로 KAIST가 승리했다.

이번 정기전에서 카이스트는 ▲인공지능경기(3대2) ▲스타크래프트 경기(2대1) ▲축구경기(2대1) ▲농구경기(63대51) ▲야구경기(13대7) ▲과학퀴즈대회(1등, 3등) 등 6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포스텍은 ▲해킹대회(11대7)에서 승리했다. 학과 교류전을 포함한 종합점수는 KAIST가 765점, 포스텍이 535점으로 집계됐다.

본 대회가 끝난 후 양교 학생 1천여 명은 인기그룹 크라이넛의 축하공연을 함께 즐기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역대전적은 4승 1패로 KAIST가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6회 카포전은 내년 9월 포스텍에서 개최된다.

## 생명연, 바이오신약소재연구센터 착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오는 11월 오창분원에 바이오신약소재연구센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말 완공예정인 모두 192억 원이 투입될 바이오신약소재연구센터는 신약 소재 연구와 이를 위한 핵심기지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충북 오창단지 IT업종과 신약개발 연구 거점지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 오창분원에는 2012년까지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9개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시설인 국가영장류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동중이며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효성 평가센터는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IAC2009' 대덕 유치 확정

'IAC2009'(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국제우주회의)의 대전 유치가 확정됐다.

지난 10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IAF(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국제우주항행연맹)총회 투표에서 후보지인 중국 상하이와 체코 프라하시와의 팽팽한 접전을 치르며 사상 유례없던 비밀투표까지 진행해 2009년의 국내유치패거를 이 끌어냈다.

이번 유치 성공은 대전시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이 적극 협력해 모든 역량을 한곳으

로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IAC는 매년 10월 유럽과 비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세계적 권위의 대규모 우주학술회의 및 전시회로 2009년 대전총회에는 1주일간 60여 개국에서 약 5천여 명의 IAF회원 및 학자 등 관계자들이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우주관련 전시에 약 2만 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IAF가 요구하는 4만여 석 규모에는 현재 약 2천여 석으로 건설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전시관 및 시설 확장과 점진적 KOTRA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㉔

### 11월 학회동정

- ◆ 한국방송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1월 10일(금)/서울산업대 (미래관)/문의 02-568-3556
-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11일(토)/ 동덕여자대학교 음악관 국제회의실/ 주제-어린이의 영양과 식품 안전, 어떻게 지킬 것인가/특별기획-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care)와 영양치료/문의 042-629-8266
- ◆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17일(금)/서울대학교/문의 <http://www.korms.or.kr>
- ◆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23일(목)~25일(토)/호텔 인터볼고 (대구시 소재)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ick@kofst.or.kr](mailto:ick@kofst.or.kr)